의사학 제22권 제2호(통권 제44호) 2013년 8월
ⓒ대한의사학회

Korean J Med Hist 22 : 421-448 Aug 2013
http://dx.doi.org/10.13081/kjmh.2013.22.421
pISSN 1225-505X, eISSN 2093-5609

최근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신규환(연세대)*

1. 머리말
2. 구술 자료의 수집과 구술 자료집의 출간
3. 의학인물사 연구
4. 비주류 의료인 및 의약업자의 구술사
5. 환자 구술사와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6. 맺음말

1. 머리말

최근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를 활용한 연구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구술사란 "과거의 기억을 말로 회상한 것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는 역사연구"이다. 구술사에는 구술채록과 이에 기반한 역사서술을 포함하고 있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18). 최근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에 대한 관심은 근현대 의학사분야의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데다 20세기 전반과 중반을 경험했던 의료계의 원로들이 대거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경험담을 채록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때문이기도 하다. 구술사는 기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구술사는 개인 구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구술자 개인의 생애와 활동에 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120-752
전화: 02-2228-2474/ 이메일: jerryq@yuhs.ac
ⓒ 대한의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한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기 쉽고, 부정적인 면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심각한 약점이 있다. 아울러 구술내용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등 객관성의 확보가 구술사 접근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된다.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에 대한 관심은 일차 자료의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구술사에 대한 관심이 오직 자료 보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학사 연구가 전통적인 역사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구술사가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성공한 의사이야기에서 벗어나 고통 받는 환자이야기, 비주류 의료인 및 의약업자 이야기 등이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술사의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 제출되고 있는 구술사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구술사 연구가 현 단계 의학사연구에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학사 분야의 구술사는 몇몇 연구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먼저 연세대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에서는 1997년 6월『연세의사학』의 창간 이래로 원로의사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최근까지 50여명의 원로의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중 20여명 이상의 구술내용을 잡지에 게재하였다. 그 중에서도『연세의사학』11-2(2008년 12월호)와 12-2(2009년 12월호)에는 각각 조산사 특집호와 산부인과 의사 특집호를 게재하고 있고, 그 안에 구술내용과 관련하여 출산 연구를 제출한 바 있다(연세대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2008; 2009).

서울대 의대에서는 구술을 활용하여『한국의학인물사』를 출간하였고, 구술을 바탕으로 신경외과 심보성 교수의 개인 평전을 발표하기도 했다(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2008; 김옥주 · 박지영, 2012). 또,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는 구술사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했다(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9).

한의학 분야에서는 한의학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구술을 간접적으로 활용

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아직 구술사를 연구 성과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한의학 분야의 구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문 분과는 의료인류학과 의료민속학 등이다. 대표적으로 박경용의『한국 전통의료의 민속지 I : 원로 한약업사의 삶과 약업 생활문화』와 원보영의『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적 연구』를 들 수 있다(박경용, 2009b; 원보영, 2010). 의료인류학자인 박경용은 원로 한의사에 대한 구술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박경용, 2007b; 2008a). 아울러 그는 한약업사, 침구사, 채약인 등에 대한 구술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약업사에 관한 단행본과 한약업사 · 한의사에 관한 구술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하였다(박경용, 2009b; 2011). 의료인류학자인 김태우는 장기간의 현지조사와 구술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특징을 구분해내고, 의학전통이 전승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김태우, 2012; 2013). 의료민속학자인 원보영은 현지조사와 구술에 바탕하여 조선후기 이래 민간의료의 다양한 존재방식을 검토하였다(원보영, 2010).

의료인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한센병 환자와 원폭 피해자 등에 관한 구술을 바탕으로 사회학, 역사학, 문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관련 연구가 제출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사회학자인 정근식, 주윤정 등은 구술 자료에 근거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고(정근식, 1997a; 1997b; 2002; 주윤정, 2007), 역사학자, 문학자 등도 한센병 구술에 바탕한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있다(Kim, 2012; 한순미, 2010a; 2010b; 김성리, 2012). 또, 정근식과 역사학자인 정진성 등에 의해 원폭 피해자의 구술과 평전 등이 출간되기도 했다(정근식, 2005a; 정진성, 2008).

이밖에 구술사 연구로서 주목할 연구로는 金成民의 731부대 관련 구술사 연구가 있다. 金成民은 20여 년 동안 하얼빈 등지에서 자신이 정리해온 각종 구술 자료와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731부대에 관한 단행본을 국내에 발표하기도 하였다(김성민, 2010a).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등장하였고, 본고는 한국의학사와 관련된 최근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우선은 구술 자료집 출간 상황을 검토하

고, 전통적인 구술사 서술방식인 의학인물사로부터 최근의 연구경향인 비주류 의료인 및 의약업자 연구와 환자 구술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의 구술사 연구 경향과 과제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2. 구술 자료의 수집과 구술 자료집의 출간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고중세와 근현대를 막론하고 자료부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구술 자료가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게 확보되고 있지만, 구술 자료를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구술사 연구의 활성화와 구술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구술 자료집이 공간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원자료(raw data)까지도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술내용이 정식으로 공표된다고 해도, 구술 자체에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구술자의 주관적 내러티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구술내용상의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러나 구술내용의 검증 문제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어느 정도는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원자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제대의 『백병원70년사』 등 일부 병원사 서술에서 간헐적으로 원로의사들의 구술내용을 포함해왔고, 의학인물사와 관련된 단행본이나 기사들은 직접 구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연세대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의 『연세의사학』과 같은 잡지를 통해 원로의사 인터뷰가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2006년 4월, 대한의사학회는 구술사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구술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성과를 제출하지는 못했다. 구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구술을 위한 사전준비, 인력, 장비, 재원 등이 소요되는 만큼 의욕만으로 쉽게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조속한 성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체계적인 구상과 준비 작업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구술 자체만을 수집하는 활동만으로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술에 바탕하여 연구 성과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획을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의학인물사의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집의 지속적인 출간 작업을 위한 연구기금의 확충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을 필요로 한다.

구술 자료집 편찬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이다. 국편은 사라져가는 직업집단이나 역사적 존재들에 대한 구술채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사실 연세대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에서 진행한 조산사 및 산부인과 의사 구술은 국편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밖에도 국편은 한센병 환자에 대한 구술과 가족계획 계몽원에 대한 구술도 지원하였으며, 각각의 구술내용은 2005년 정근식, 소현숙 등이 정리한 국편의 『한센병, 고통의 기억과 질병정책』(구술사료선집 1)과 『가족계획에 헌신하다』(구술사료선집 2) 등으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국편의 구술채록 프로젝트는 의학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국편은 자료 활용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편의 지원에만 매달려서는 양질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발간된 구술 자료집 중에서는 한센인 관련 자료집의 출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근식은 국편에서 출간한 『한센병, 고통의 기억과 질병정책』 이외에도,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2005),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2011), 『또 하나의 고향, 우리들의 풍경: 국립소록도병원 100년 구술사료집』(2011) 등의 출간을 주도한 바 있다. 이밖에 한센인들 스스로 자료집을 내기도 했는데, 『성 라자로마을 50년사』(2000)와 『예수 성심의 마을: 성심원 40년사』(2000) 등이 그것이다. 한센인 관련 자료집이 다수 출간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센병 관련 연구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인류학이나 의료민속학 연구의 경우에도 다양한 구술 자료를 발굴 · 발간하고 있어, 향후 연구 성과에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의료인류학 분야에

서는 박경용이 『전통의료 구술자료집성』을 출간하였는데, 원로 한의사와 한약업사의 구술 자료를 정리하였다(박경용,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1～5』(2002～2007)와 『구례 문화 류씨 생활일기』(1997) 등은 경상북도 예천과 전라남도 구례 지역 양반가의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기의 의료생활을 다루고 있어, 향촌사회의 의료생활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를 다룬 것으로는 평택 농민 신권식의 일기와 한약종상 박래욱의 일기가 있는데, 신권식 일기는 『평택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1～3』(2007～2009)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출간된 바 있다. 이들 자료들은 개인 일기로서 구술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지금까지 한국의학사 분야에서는 연구 자료로 거의 활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성과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구술사 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의계에서 오히려 구술사 연구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의계의 경우 다양한 학파와 학회가 존재하고, 그들 선배들의 진료 및 연구 활동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술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김태우, 오재근 등이 소문학파에 관한 구술사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김태우, 2013).[1] 이밖에 최근 한의학연구원에서 민간의료에 관한 자료와 구술채록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향후 성과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3. 의학인물사 연구

사실 의학사분야에서 구술을 통한 의학인물사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1) 세명대 한의대 오재근 교수는 2013년 9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되는 전통의학사 국제학술대회에서 「근현대 한의학 학술유파의 형성과정: 무위당 이원세의 삶과 의학」이라는 제목으로 구술사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행되어왔다. 그러나『한국의학의 개척자』와 같이 동시대 인물에 대한 구술과 직접적인 친분관계에 의존한 의학인물사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구충, 1985). 의학인물사나 병원사 연구 등에서 망실한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들의 구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구술사를 활용한 연구들이 의학인물사 연구의 갈증을 일부 해소해 준 것은 분명하다.

최근『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나『한국의학인물사』 등이 구술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면은 적고 선별한 인물은 많은 터라 해당 인물의 이력과 활동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한국의학원, 2007; 2009; 2011;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2008). 김명선, 백인제, 장기려 등 개인 전기나 평전의 경우도 주변 인물이나 후학들의 구술에 기초하여 인물사를 재구성하고 있지만, 대체로 개인의 인물됨과 존경받는 의사로서의 성공담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학교법인 인제학원, 1999; 지강유철, 2007). 그런 점에서 이들 연구는 본격적인 의학사 연구 성과로 보기는 힘들다. 백인제, 장기려 등에 관한 일부 비판적 접근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정준영, 2012; 김택중, 2008). 특히 근현대 의학인물사의 경우, 해당 인물의 직계 가족이나 제자들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에서 대해서 구술사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재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의학인물은 어떠할까? 최근 출간된 김옥주 · 박지영의『한국신경외과학의 선구자, 심보성』(이하『심보성』)은 현 단계 의학인물구술사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저작이 될 수 있다.[2] 심보성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의학의 분과체계의 확립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다. 또한『심보성』은 제한된 문헌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

2)『심보성』에 대해서는 이재담의 서평을 참고할 수 있다(이재담, 2012).

술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의학인물을 충실하게 재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학인물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질 것이다.

심보성은 150여 편의 학술논문, 개인노트, 권두언 등을 남겼지만, 자신의 일대기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논문 위주로 인물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심보성』의 저자들은 주인공의 시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교실의 역사에 대한 부언, 신경외과학 술기와 그 역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구술로만 풀어낼 수 없는 다양한 내용을 지성사 연구방식으로 심보성의 사상과 학문을 분석하여 600여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집필하였다.

일반적인 독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런 내용도 있지만, 저자들은 신경외과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동물실험 방법과 결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부언하고 있다. 신경외과학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독자라면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은 한국 신경외과학의 발전에서 심보성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신경외과학이 정착되던 초기에 한 개인이 실험연구, 임상진료, 의학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현미경을 활용한 미세수술을 꺼려하여 육안수술을 선호했던 심보성의 고집으로 인해 서울대가 뇌동맥류의 직접 결찰술 등은 타 대학에 비해 뒤늦게 받아들여졌는데도, 심보성의 수술법은 후진들이 미세수술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는 적절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심보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저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심보성이 한국 신경외과학의 독보적인 존재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아이러니다. 실제로 1950-60년대 한국의 신경외과학은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신경외과학을 이끌었던 이주걸 등이 수도의과대학에서 신경외과를 주도하였고, 문태준은 1957년 귀국하여 연대의대에서 신경외과

학교실을 창립하는 등 적어도 4개 이상의 대학이 한국의 신경외과학을 경쟁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또, 같은 시기 각 대학의 신경외과교실이 신경외과 전 분야를 석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기 어려웠다. 이주걸 · 김정근(수도의대), 문태준 · 이헌재(연세의대), 심보성(서울대의대), 이주걸 · 이철우(경북의대) 등은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연구를 축적해 나갔다. 이주걸은 개방성 복잡분쇄함몰 골절과 전간증, 이헌재는 파킨슨씨병과 수전증, 심보성은 반구대뇌적출술, 이철우는 파킨슨씨병 등에 집중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중심이 심보성이고, 서울의대 신경외과학교실의 인물의 구술과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고, 그 밖의 서울대 및 타 대학 출신 인물들은 주변적인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저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공정하게 읽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하필 심보성이 선택되었나에 대한 의문은 그가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해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꿔 말하면, 구술사의 대상을 선정할 때, 연구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4. 비주류 의료인 및 의약업자의 구술사

최근 한국의학사 분야에서 구술사 연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연구자들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의료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내지 못하는 조산사, 한약업사, 민간치료사 등과 같은 비주류 의료인 및 의약업자[3] 혹은 민중문화사의 관점에서 구술사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의 대표

3) 「의료법」규정에 따르면, 조산사는 의료인이고, 접골사, 침구사 등은 의료유사업자에 속한다. 한약업사는 의약판매업자이며, 민간치료사는 법적인 지위는 없는 불법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나 용어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임시로 비주류 의료인 및 의약업자로 통칭하고자 한다.

적 구술사가인 폴 톰슨(Paul Thompson)이 구술사란 "피지배층의 구술 자료를 통하여 아래로부터 역사를 쓰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윤택림 · 함한희, 2006: 46). 구술사 자체가 처음부터 공식적 자료로는 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억과 구술에 기초하였기에 민중문화사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보는데, 한국의학사 분야의 구술사 역시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윤재, 신규환, 이현숙 등은『연세의사학』조산사 특집과 산부인과 의사 특집을 통해 조산사와 산부인과 의사 구술에 기초하여 출산과 관련한 제도, 교육, 기술, 문화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09년 15명의 조산사와 12명의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출산문화와 관련한 구술을 진행하였다. 조산사와 산부인과 의사는 한 때 만인의 부러움을 받는 성공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직종이었으나 현재는 기피 직종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주류로부터 소수자로 전락한 상황이다.[4] 의학사를 전공하는 여러 명의 연구자가 구술작업에 직접 참여하였고, 각자의 관심과 경험을 근거로 각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주제를 소화하였다(박윤재, 2008; 2009; 신규환, 2008; 2009; 이현숙, 2008; 2009; 이수진, 2008; 김효진, 2008).

박윤재 · 신규환 · 이현숙 등의 조산사 · 산부인과 의사 구술은 현 단계 구술채록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준다. 조산사 · 산부인과 의사 구술을 통해서, 일제시기 이래로 조산사의 주요한 활동 시기는 한국에서 서양의학의 정착과 발전시기와 유사하며, 의료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조산사의 주요 역할은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산사 관련 연구 성과를 통해 볼 때, 20세기 전반까지 각국의 조산사 상황은 크게 달랐다. 조산사의 경우만 해도, 일본에서 조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되었던 것과는 달리, 조선, 대만, 중국 등지에서 조산사는 상대적으로

4) 물론 산부인과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유사의료업자나 사멸하는 의료인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출산을 중심으로 한 산부인과가 의료계 내에서 비주류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적었고, 조선의 경우는 일본의 1/10 수준에 불과할 정도였다(신규환, 2008: 22). 해방 이후 조산사제도는 일제의 면허제도를 계승하면서도 간호학교 졸업생들에게 간호면허와 조산면허를 동시에 수여하는 등 일부 제도변화가 있었다. 1962년 의료법 제정에 따라 간호면허를 가진 자가 1년 동안의 추가 수습기간을 거쳐야 조산사면허가 주어지는 등 조산사 면허제도가 강화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산사의 감소를 초래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다. 1973년 개정의료법으로 조산사들이 조산소를 개원할 수 있었고, 분만범위도 폭넓게 해석됨에 따라 조산사의 운신의 폭은 다소 넓어졌다. 그러나 1977년 의료보험의 실시와 가족계획 사업 등의 활성화로 조산업은 크게 쇠퇴하였다(박윤재, 2008: 34-47).

조산사들이 주로 정상분만의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출산을 도울 수 있었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상분만뿐만 아니라 이상분만, 제왕절개, 피임, 낙태, 마취, 항생제 처방 등 다양한 의료행위를 통해 출산에 개입할 수 있었다. 1950년대까지는 회음보호를 원칙으로 주로 자유분만을 유도하였고, 피임기구나 피임수술이 발달하지 않아 인구조절 수단으로 인위적인 낙태수술이 많이 시행되던 시기였다(신규환, 2009: 11). 1960-70년대에는 가족계획운동이 활성화되어 의사뿐만 아니라 조산사들까지도 가족계획운동에 동원되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루프 시술, 난관수술, 복강경수술 등을 실시하면서 가족계획운동에 참여하였다(박윤재, 2009: 22-24).

한국에서 제왕절개 수술의 급증은 의료보험의 실시 자체가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제왕절개율은 1970년 4.9%에 불과했는데, 이후 매년 1-2%씩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40%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는 병원접근성의 향상과 더불어 산과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다 안전한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과도한 제왕절개율은 자연분만의 낮은 수가에 대한 의사의 보상심리와 안전한 출산을 원하는 산모의 기대심리가 공모한 결과로 판단된다(신규환, 2009: 11-12).

조산사 · 산부인과 구술을 통해서 해방 이후 출산문화의 변화과정을 추적

할 수 있었고, 법규정과 의료현실 사이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산사의 정상분만 내의 조산과 의사의 낙태나 제왕절개 등은 법규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베이비붐을 통해 다산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1960-70년대까지 조산사와 산부인과 의사는 출산의 호황기를 거쳤으며, 1970년대 후반 가족계획과 의료보험의 실시 등으로 한국의 출산문화가 전환점을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한국의 출산문화가 제도적으로 임산부가 먼저 조산사를 거친 다음 필요에 따라 의사 진료를 받는 유럽형과 임산부가 조산사와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북미형 등과 달리, 의사 중심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은 좀 더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조산사 · 산부인과 의사 구술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우선은 구술자의 선정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구술자를 선정할 때, 해당 학계나 업계에서 명망이 높거나 존경받는 인물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그밖에는 학회나 협회 조직 등의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들 조산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추천을 받거나 현직에서 활동 중인 인물일 경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아닌 한 인물의 영웅적 이야기나 성공 스토리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필자가 참여했던 조산사 · 산부인과 의사 구술 과정에서 조산에 실패한 경험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조산에 실패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조산사는 구술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평범한 조산사의 이야기를 듣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도 학계나 개원가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들이어서 이들에게서 어떤 실패담을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다수의 구술자를 대상으로 구술채록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구성, 장비 구입, 사례비 지급 등을 위해 일정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 출산구술팀은 국편의 지원을 받았고, 국편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구술 자료 활용에 제한을 두어 연구 성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구술사 연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

해서는 장기적인 구술채록과 더불어 연구 활동도 병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학 분야의 대표적 구술사 연구 성과는 박경용이 주도하고 있다. 박경용은 수년 동안 대구 · 경북지역 한의사 · 한약업사 등을 추적하여 그들의 경험과 일상을 복원하는 성과를 제출하였다. 박경용에 의하면, 해방 이후 한의사들은 독학, 사사, 도제, 집단강습, 전문학원, 한의과대학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던 것은 직접적으로는 면허시험에 대비하고, 간접적으로는 직역에 걸맞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정고시' 체제하에서 가업계승자들은 어려서부터 약재와 처방에 대해 공부하게 되지만, 비가업계승자들은 사사나 학원 등을 통해 한의학지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 1965년 6년제 한의과대학이 출범하면서 기존 검정고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경로는 점차 쇠락하였다.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을 마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박경용, 2007a: 508-529).

한약업사는 대한제국 시기 이래로 약제사(약사)와는 구분되어 처방 조제와 약품 판매를 담당했던 (한)약종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한약종상은 한의사의 처방 조제 및 약품 판매 이외에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겸하는 존재였다. 한약종상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의료 취약지구에서 의료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한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의 수가 늘어나고, 한의과대학에서 한약사가 배출되면서 한약종상의 지위를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다. 한약종상은 1971년 한약업사(漢藥業士)로 개칭되었고, 1986년 한약업사(韓藥業士)로 개칭되었다. 1983년 11월 마지막 한약업사 시험 이후로 더 이상 신규 한약업사가 배출되고 있지 않다.

박경용은 한약업사 구술을 통해서 한약업사들의 입문과정, 지식과 기능의 습득과정, 자격취득 과정을 유형화하였고, 구술을 통해 한약업사들의 성장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오히려 구술에 대한 의존도

가 크다보니, 문헌 및 제도사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조차도 구술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제도사적인 내용만은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연구사적 오류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박경용은 논문에서 한약업사 제도의 부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장하기도 했는데(박경용, 2007c), 한약업사에 대한 지나친 친밀감이 연구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의료민속학자인 원보영은 민간의료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 및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한국인의 전통적인 질병인식과 민간요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원보영, 2010). 원보영은 기존 연구가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서양의학과 한의학 등 제도권 중심의 의료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지적하고, 문헌과 구술을 통해 민간의료의 실체와 그것의 지속과 변화양상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예천 맛질 박씨가 일가』와『신권식 일기』등을 분석하였고, 현지조사와 구술대담 등을 통해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원보영은 경기도 서남부 지역의 현지조사를 통해 현대문명으로부터 비교적 고립된 오지마을의 민간의료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치병을 위한 장님 독경쟁이의 존재와 활동을 밝혀내기도 했다. 경쟁이는 무당과는 다른 존재로 질병을 치료하고 악귀를 몰아내는 등 하는 일은 같지만, 경을 읽는 방법으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그 방식은 달랐다(원보영, 2010: 90-94).

원보영은 한의사에게 사사 받지 않고 독학으로 한의학 지식을 갖추었으며, 침, 뜸, 탕약, 환약, 고약 등 한 두 가지 기술을 가진 '민간의사'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경기도 의왕의 민간의사 최동진의 사례를 통해 민간의사가 약간의 한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한의학을 독학하여 간단한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동진은 천문지리에도 밝아 묘 자리를 봐주는 지관(地官)의 역할도 담당하였다(원보영, 2010: 86-90). 그런데 의료 취약지구에서 한두 가지 기술을 가진 의료유사업자에게 민간의사라는 개념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거에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여 엄격한 법적용을 받지 않았던

무면허 돌팔이들을 과대평가하여 그들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사'이외에도 '의료민속', '질병과 질환' 등 원보영이 사용하는 개념은 일반적인 이해와는 거리가 있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 또, 지역별 · 시기별 민간의료의 양상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나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가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시스템과 어떻게 차별적으로 존재해왔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환자 구술사와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최근 구술사 연구에서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의료인의 구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환자 구술사는 한 개인의 고통을 재현하고 기억을 재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단적 · 역사적 트라우마를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역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센인에 관련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학자인 정근식은 지속적인 한센인 구술에 바탕하여 이미 여러 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는 식민지기 이래로 일제의 강압적인 한센인 정책과 강제불임 등 인권문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권력의 폭력성과 반인권적 사례를 발굴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문학자인 한순미는 한센인 문학가인 한하운과 심숭 등의 문학에 대한 고

5) '민간의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의료민속학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듯하다. 원보영은 '의료민속'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또, 전통사회의 민간의사는 관의와는 구별되는 유의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들을 민간치료사(무당, 경객)의 범주 넣을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찰을 통해 자기 치유로서의 문학에 주목하였고(한순미, 2012a; 2012b), 소문, 규율담론, 자기 고백적 서사 사이의 긴장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한순미, 2010a). 김성리는 한센인의 장기적인 구술과 시쓰기 과정을 통해 삶의 고통과 회한을 토로하고 정서적 치유에 도달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김성리, 2012). 구술사가 단순히 자료보완의 기능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성찰과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스토리텔링 치료나 서사치료의 가능성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윤택림, 2012).

역사학자인 Jane Kim은 한국에서 한센병의 개념과 인식을 추적하기 위해 구술 자료와 민속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및 관계자들의 구술채록 등을 활용한 나병의 역사를 쓰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주관성이 강한 구술내용으로는 격리와 강제불임시술, 폭력과 진압을 둘러싼 복잡한 권력관계와 책임소재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센인 구술사로는 단지 가해자에 대한 희생자의 도덕적 비난이라는 단순한 묘사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Kim, 2012: 187-188).

한센인 구술사와 마찬가지로 원폭 피해자 구술은 개인의 신체에 가해진 고통의 기원과 현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한센인 구술사가 개인적 고통의 극복으로부터 식민권력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반면, 원폭 피해자 구술사는 제국주의와 전쟁의 광기와 국가권력의 억압성을 폭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근식은『고통의 역사』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구술을 모아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함으로써, 원폭 피해자로서 일본에 집중하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 원폭의 역사적 의미를 재규정하고자 하였다(정근식, 2005a).『고통의 역사』가 구술 자료집의 성격이라면, 허광무의『히로시마 이야기』는 조선인 징용공의 구술을 바탕으로 그의 일생과 원폭 이야기를 재구성하였다(허광무, 2013).

이들 구술내용을 통해서 원폭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술내용이 주로 피폭 경험, 고통, 피해자 신고 및

치료과정, 정부대응의 한계 등에 한정되어 있고, 개별 구술 내용도 몇 장에 걸쳐 요약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구술내용만으로는 피폭 이후의 광범위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실체와 사회적 차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원폭 피해자의 특수성은 그 피해가 1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원폭의 후유증은 2세에게도 이어졌고, 때로는 1세보다도 더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원폭 2세의 경우에는 건강한 경우도 있고, 극도로 병약한 경우가 있어, 원폭 1세와 2세 사이 또는 2세 내부에서도 갈등이 증폭되었다. 원폭 피해자들 사이에서 '고통의 연대'가 공유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해관계와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1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법적으로 원폭 2세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폭 2세들의 활동을 지지하기는커녕 우려와 견제의 제스처를 보였다. 1세 원폭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건강한 2세가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원폭 1세와 2세 사이의 내부갈등은『고통의 역사』등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전진성은 원폭 2세 환자인 김형률에 대한 평전『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를 통해 원폭 1세와 2세의 내부갈등에 주목하고, 원폭 피해가 한 개인, 한 가족의 고통이 아닌 한국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로서 재현해야 되는 대상임을 부각시켰다(전진성, 2008). 김형률은 원폭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동일한 고통을 받은 1세들과 건강한 2세들로부터 외면 받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김형률의 구술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광기의 역사는 한 세기를 지나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후손들의 몸을 통해서 유전되고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김형률 구술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신들을 육체적 상처를 가진 피해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전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존재로서 새롭게 인식해 나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환자 구술을 포함한 다양한 구술에 바탕한 모범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김

성민의『일본군 세균전』이다(김성민, 2010a). 이 책은 972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저작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자신이 수행해 온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는 이미 731부대원에 관한 구술자료집을 냈을 뿐만 아니라 731부대의 세균전과 관련된 여러 권의 단행본도 출간한 바 있다(韓曉 · 金成民, 1995a; 1995b; 金成民, 2002; 2006; 2009; 2010b). 이 책에는 731부대원의 증언, 중국인 노무자들의 증언, 피해자 가족들의 고발 등 풍부한 구술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김성민의『일본군 세균전』은 저자가 20여 년 동안 연구해 온 731부대의 세균전 활동을 종합하여 정리한 연구이다. 전체 8편 4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관동군 제731부대, 제2편 제731부대 각 지부, 제3편 기타 세균부대, 제4편 세균전, 제5편 특별이송, 제6편 전범 재판, 제7편 일본군 세균전 연구와 유적지 보호, 제8편 연표 등이다. 김성민은 731부대원, 중국인 노무자, 목격자, 피해자들의 증언을 일일이 채록하고 기록하여 연구 성과에 반영하였다. 이들 구술 내용들은 전 전체에 걸쳐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 자료를 법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구술 자료와 육필증언 등을 치밀하게 정리하였고, 그 일부는 731부대 유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저자가 구술 자료 획득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0여 명의 731부대 대원과 헌병들, 300여 명의 세균전 피해자와 관련 노무자 등의 구술은 세균전의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731부대의 활동과 세균전의 실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구술이 단순히 문헌자료의 한계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은폐되고 소실되어 문헌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구술 자료로 확보한 후, 이를 다시 문헌적으로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한 연구방식의 성과 중의 하나로 제5편에서 다룬 '특별이송'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제출할 수 있었다. 즉 특별이송에 대해서는 731부대원이나 노무자 증언 등을 통해 적지 않은 구술이 이루어진 바 있는

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997-1998년 헤이룽장성 당안관(黑龍江省檔案館)에서 다량의 특별이송 관련 문건을 찾아낼 수 있었다.

특별이송은 731부대가 생체실험을 위한 마루타를 조달하기 위해 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정치범이나 사상범을 731부대 실험실로 이송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일반인들도 간첩이나 정치범의 혐의로 체포되고 이송되었다. 특별이송에 관한 자료들은 특별이송이 731부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동 헌병대사령부 헌병대, 파견대, 만주국 경찰청, 각급 경찰국, 보안국, 특무기관, 국경경찰대 등 방대한 규모로 동원되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해 특별이송 횟수만 936회에 달해, 매년 1,000여 명 이상, 1938-45년까지 8년 동안, 8,000여 명 내외가 특별 이송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300여명의 특별이송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는 심득룡, 이기수, 한성진, 김성서, 고창률 등 한국인 명단도 확인할 수 있다(김성민, 2010a: 867).[6)]

김성민의 연구는 일본군의 세균전과 화학전에 관련된 자료조사를 위해 광범위한 현장답사와 관련자들의 구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군의 세균전과 화학전이 국부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민의 연구는 수많은 현지조사와 풍부한 구술채록에 근거한 것으로, 타 지역 연구자나 외국인 연구자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현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목격자의 구술 중 검증하기 어려운 '구술자의 일방향적 서사적 구술'이 적지 않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난제가 남아 있다. 물론 피해자 구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술자의 일방향적 서사적 구술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각종 잔혹행위 등이 구술내용으로 묘사되

6) 심득룡(沈得龍)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한 항일 독립 운동가였는데, 다롄 국제반제국정보소에서 활동하다가 1943년 10월 다롄 헌병대에 체포되었고, 특별 이송 되어 731부대의 마루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성민의 책에서는 '선더룽'으로 표기되어 마치 중국인 항일운동가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번역상의 오류로 보인다(김성민, 2010a: 817-818).

어 있는데, 이런 구술들을 어디까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언급된 인용문이나 구술내용 등의 문헌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점도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6. 맺음말

구술사는 사료적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고,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거시사적 서술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의학사분야에서는 광범위한 구술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반면 구술자의 구술은 과거의 경험에서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역사성을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구술의 내용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구술 내용은 신뢰성의 측면에서 검증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사 연구는 새로운 사료수집 방법이자 개인의 삶과 사회변동 사이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고, 국가나 정치 중심의 역사에서 일반 민중 혹은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받지 않았던 인물이나 직업군이 새롭게 조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위로부터의 역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온 연구결과를 유추해볼 때, 최근의 구술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역사학, 문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의사학 등 각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구술사 연구방법은 새롭게 각광받는 연구 분야가 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시각에서 구술 자료집이 발간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구술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학사분야에서 구술사의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술 자료의 지속적인 출간을 통해 다각적인 분석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일부 개별적인 연구에서 일

회적으로 구술자료가 생산되고 소비될 경우, 연구 성과의 객관적인 검증도 어렵거니와 신진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볼 때, 구술 자료를 공개적으로 많이 축적한 분야일수록 연구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의학인물사에 초점을 맞춘 의사 구술 자료를 제외하면, 조산사, 한약업사, 한센인, 원폭 피해자, 731세균전 피해자 등 주로 비주류 의료인 및 의약업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구방법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의학인물사 연구에서 구술 자료는 인물의 성공스토리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후자와 같은 주제사 연구에서는 소수자의 시각에서 사회상을 재구성하게 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소수자의 시각이 반영된 자료는 기존의 위로부터의 역사 서술 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방법이자 연구주제라고 판단된다.

셋째, 구술사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단으로 기획된 것이지만, 구술 자체가 구술자의 왜곡된 정서를 순화시키고 자기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술 자체는 치료행위가 될 수 없으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스토리텔링 기법은 구술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의 지표를 열어주는 정서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치유로서의 구술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술 자료에 의존한 연구 성과는 구술에 의존하게 되므로 서술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매우 중요한 연구덕목이 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연구대상에 집착하다보면 연구대상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구술자와 지나치게 밀착될 경우 연구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어렵게 되고, 연구자의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색인어: 구술사, 의학사, 아래로부터의 역사, 자기치유, 객관성, 합리성

투고일 2013. 6. 21 심사일 2013. 7. 6 게재확정일 2013. 7. 28

참고문헌 REFERENCES

〈자료〉

『구례 문화 류씨 생활일기』(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국립소록도병원,『소록도 80년사』(국립소록도병원, 1996).

국사편찬위원회 편,『한센병, 고통의 기억과 질병정책』(구술사료선집, 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국사편찬위원회 편,『가족계획에 헌신하다』(구술사료선집, 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박경용,『전통의료 구술집성 1: 대구약령시 원로 한의약업인 6인의 의약업과 삶』(서울: 경인문화사, 2011).

신권식,『평택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1～3』(수원: 경기문화재단, 2007～2009).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1～5』(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2007).

이병례,『소록도 한센병환자의 강제노역에 관한 진상조사』(서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정근식 편,『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서울: 선인문화사, 2005a).

정근식 편,『한센병, 고통의 기억과 질병정책』(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b).

정근식 편,『또 하나의 고향, 우리들의 풍경: 국립소록도병원 100년 구술사료집』(서울: 선인, 2011)

정근식 외,『한센인 인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5).

정근식 외,『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서울: 보건복지부, 2011).

金成民,『日本軍細菌戰原隊員證言集』(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9).

〈연구논저〉

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서울: 도서출판 큐라인, 1998).

김성리,「시치유에 대한 인문의학적 접근: 한센인의 시를 중심으로」,『의철학연구』13, 2012.

김성민,『일본군 세균전』(서울: 청문각, 2010a).
김옥주 · 박지영,『한국신경외과학의 선구자, 심보성』(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김태우,「한의학 진단의 현상학과 근대적 시선 생경하게 하기」,『한국문화인류학』45-3, 2012.
김태우,「과거의 의서에서부터 당대의 실천까지:『소문대요』, 소문학회, 그리고 동아시아 의학전통의 전승방식을 바라보는 인류학적 시선」,『한국의사학회지』26-1, 2013.
김택중,「성산 장기려, 그 신화의 이면」,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편,『인문의학』(서울: 휴머니스트, 2008).
김효진,「일신부인병원의 조산교육: 1952년부터 1970년대말까지」,『연세의사학』11-2, 2008.
나가이 다카시,『그날, 나가사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김재일 역(서울: 섬, 2011).
박경용,「원로 한의사의 한의학 입문과 지식, 기술의 전승: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비교민속학』34, 2007a.
박경용,「전통의약에서 "비방(秘方)"의 습득과 실천, 현재적 의미: 한약업사(韓藥業士)의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58, 2007b.
박경용,「한약업사의 지위 공인과 태생적 강제」,『지방사와 지방문화』10-1, 2007c.
박경용,「한약 전통의 계승과 단절: 한약업사의 가업 계승을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36, 2007d.
박경용,「원로 한의사의 의료적 실천과 문화적 함의」,『인문과학』41, 2008a.
박경용,「전통 침구의 단절과 침구사의 존립 양상: 원로 침구사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한국학논집』37, 2008b.
박경용,「채약(採藥) 민속과 민간의료: 대구, 경북지역 채약인(採藥人)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36-1, 2009a.
박경용,『한국 전통의료의 민속지 I: 원로 한약업사의 삶과 약업 생활문화』(서울: 경인문화사, 2009b)
박경용,『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I: 대구약령시 원로 한의약업인 6인의 의약업과 삶』(서울: 경인문화사, 2011)
박윤재,「해방 후 한국 조산제도의 성립과 변화: 원로 조산사들의 구술을 중심으로」,『연세의사학』11-2, 2008.
박윤재,「원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억하는 가족계획사업」,『연세의사학』12-2, 2009.
백병원70년사 편찬위원회 편,『백병원70년사』1권 (김해: 인제대학교출판부, 2002).
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편,『한국의학인물사』(서울: 태학사, 2008).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편,『미시사, 100년전 동아시아 의사들을 만나다』(서

울: 태학사, 2009).
신규환,「20세기 전후 동아시아 조산제도의 성립과 발전」,『연세의사학』11-2, 2008.
신규환,「20세기 한국 산과기술의 도입과 발전」,『연세의사학』12-2, 2009.
애양원 100년사 간행위원회,『구름기둥, 불기둥: 섬김의 동산, 애양원 100년』(여수: 애양원, 2009).
원보영,「『규합총서』의 의료민속학적 연구」,『민속학연구』11, 2002.
원보영,「전통사회 질병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과 대응」,『실천민속학연구』7, 2005a.
원보영,「조선후기 지역 민간의료체계의 발전사」,『국사관논총』107, 2005b.
원보영,『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적 연구』(서울: 민속원, 2010).
윤택림,「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적 상흔: 진실 찾기와 치유의 가능성」,『인문과학연구』30, 2011.
윤택림,『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서울: 아르케, 2010).
윤택림 · 함한희,『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서울: 아르케, 2006).
이수진,「일본 산파연구의 최근 동향」,『연세의사학』11-2, 2008.
이재담,「서평: 선구자 심보성과 한국 신경외과학의 발전사」,『의사학』21-3, 2012.
이현숙,「소비자입장에서 본 출산문화 비교」,『연세의사학』11-2, 2008.
이현숙,「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연세의사학』12-2, 2009.
인제학원,『선각자 백인제』(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전진성,『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2세 환우 김형률 평전』(서울: 휴머니스트, 2008).
정구충,『한국의학의 개척자1』(서울: 동방도서, 1985).
정근식,「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일제하 나요양원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51, 1997a.
정근식,「한국에서의 근대적 나 구료의 형성」,『보건과 사회과학』1, 1997b.
정근식,「동아시아 한센병사 연구를 위하여」,『보건과 사회과학』12, 2002.
정근식,「사회적 타자의 자전문학과 몸: 심숭의 나문학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23, 2004.
정근식,「식민지지배, 신체규율, '건강'」, 미즈노 나오키 외 공저,『생활 속의 식민지주의』정선태 역 (서울: 산처럼, 2007).
정준영,「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의사학』21-3, 2012.
주윤정,「해방 후 한센인 관련 사회사업: 천주교계의 활동을 중심으로」,『교회사연구』29, 2007.
지강유철,『장기려, 그 사람』(서울: 홍성사, 2007).

최병택,「남장로회선교부 한센병 환자 수용정책의 성격(1909~1950): 여수 애양원을 중심으로(1909~1950)」,『한국기독교와역사』32, 2010.
한국구술사연구회 편,『구술사, 방법과 사례』(서울: 선인문화사, 2005).
한국의학원,『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1집, (서울: 한국의학원, 2007).
한국의학원,『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2집, (서울: 한국의학원, 2009).
한국의학원,『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3집, (서울: 한국의학원, 2011).
한순미,「나환과 소문, 소록도의 기억: 나환 인식과 규율체제의 형성에 관한 언술 분석적 접근」,『지방사와지방문화』13-1, 2010a.
한순미,「나환의 기록과 서사적 욕망: 맥락과 징후」,『국어국문학』155, 2010b.
한순미,「상처는 왜 쓰는가: 한국 나환자 심숭의 자전소설과 치유서사의 역사적 맥락」,『인문과학연구』(강원대학교) 34, 2012a.
한순미,「'서러움'의 정치적 무의식: 역사적 신체로서 한하운의 자전(自傳)」,『사회와역사』94, 2012b.
허광무,『히로시마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3).
金成民,『日本軍細菌戰圖文集』(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10b).
金成民,『日本軍細菌戰』(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6).
金成民等,『跨國取證七三一』(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韓曉 · 金成民,『日軍七三一部隊罪行見證』第1部,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5a).
韓曉 · 金成民,『日軍七三一部隊罪行見證』第2部,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5b).
Kim, Jane, "Leprosy in Korea: A Global History," PhD diss., University of Carlifornia-Los Angeles, 2012.
Kim, Taewoo, "Classical Texts in the Present Tense: The Looking Diagnosis of a Donguibogam School in South Korea,"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Forthcoming).

Korean J Med Hist 22: 421-448 Aug 2013
pISSN 1225-505X, eISSN 2093-5609
©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http://dx.doi.org/10.13081/kjmh.2013.22.421
http://medhist.kams.or.kr

-Abstract-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Researches That Make Use of Interviews for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SIHN Kyu-hwan*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An interesting aspect of the many recent researches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is a concentration on oral histories, a trend that is sure to supplement the lack of medical documents and historical materials covering the modern period. This trend will also contribute to the invention of new approaches in the historiography of medicine. Although the fragments of oral testimony cannot be expected to give a perfect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reality, such "slices of life" help represent history from the viewpoint of ordinary people and members of the medical profession who are less often acknowledged.

The recent researches that have taken oral testimony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have both racked up achievements as well as encountered limitations. First, many disciplines such as history, literature, cultural anthropology, folklore, sociology, and the history of medicine have used the technique of oral histories in the research approaches, and, especially since the start of the 2000s, have produced a variety of materials.

* Department of. of Medical History &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Address: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2474/ E-mail: jerryq@yuhs.ac
Received: Jun. 21, 2013; Reviewed: Jul. 6, 2013; Accepted: Jul. 28, 2013

The large amounts of raw materials published in these many disciplines are sure to bring even higher research achievements.

Second, for the most part, oral history researches in the medical profession have concentrated on second-tier practitioners, such as midwives, apothecaries, and acupuncturists, and the experiences of such untypical sufferers as lepers and victims of germ and atomic warfare. While the oral history of more prominent medical figures tends to underline his or her story of success, the oral histories of minority participants in the medical profession and patients can reveal the truth that has remained veiled until now. It is especially meaningful that these oral histories enable researchers to reconstruct history from below, as it were.

Third, the researches that take the oral history approach are intended to complement documentary records. Surprisingly, through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tell their histories, the interviewees have frequently experienced the testimony as an act of self-healing. Formally, an oral history is not a medical practice, but in many cases the interviewee is able to realize his or her own identity and to affirm his or her own life's story. It is in this light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ies of such a humanistic form of therapy.

Finally, because the research achievements depend on oral materials,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description take on an important research virtue. When conducting an oral history, the researcher partakes of a close relationship with interviewees through persistent contact and can often identify with them. Accordingly, the researcher needs to take care to maintain a critical view of oral materials and adopt an objective perspective over his or her own research object.

Keywords: oral history, history of medicine, history from below, self-healing, objectivity, rationality